

경현수 개인전 <형태와 색채>에 부처

글. 김인선

모더니즘 회화 작가들에게 종용하였던 평면성은 완벽한 회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며, 이는 화면의 공간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의 강령에 따라 궁극의 예술 경지를 추구하고자 한 화가들의 작업 태도를 이끌었다. 이는 순수 추상이라는 장르를 완성시켜 나가며 회화를 또 다른 세계로의 통로로서 하나의 창으로 보았던 이전 시대의 회화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여주게 되었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보여주는 경현수 작가의 <형태와 색채>展에서의 회화는 제목에서 짐작하듯 색면들로 구성된 추상회화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회화의 최소 요소만으로 화면을 구성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그것은 성공적이다. 그의 작업은 다른 그 어떤 의미를 갖다 붙여보더라도 일단은 '형태'와 '색채'가 우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매번 이 작가의 그림 속에서 공간을 발견하곤 한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경현수 작가를 만날 때 마다 항상 묻는다. "전공이 조소였던가요? 회화였는데요?" 그럴 때 마다 친절한 작가는 "회화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라고 답해주신다.

그가 회화를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갈리고 있는 것은 2000년도 중반, 처음 만났던 경현수 작가의 작업은 입체작업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의 배경을 정확히 모른 채로 막연하게 조각을 전공하였나보다 라고 생각했고, 경현수 작가가 사용하는 과감하고 화려한 색채들은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특이한 감각의 색채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6년 부산비엔날레에서 경현수 작가에게 요청한 서울-부산 간 관계에 대한 주제는 그의 작업 형식과 잘 맞아떨어졌다. 작가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지도를 소재로 한 공간 설치를 선보였다. 지도의 길을 그대로 따 내어 그 선의 구불구불한 느낌을 유지한 채 해체하였고, 해체된 선은 몇 가지 원색들로 채색되었다. 그리고 그 길은 재구성 되어 공간의 일부를 레이어의 군집으로서 공간 속에 띄어진 채로 배치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도로에 칠했던 색채의 물감을 벽과 바닥 여기 저기 뿌리며 공간의 배경으로서 해당 작업의 영역을 표현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작가가 새롭게 보여주기 시작한 작업들은 회화였다. 이때부터 나는 그가 원래 회화를 공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라와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색채 감각에서 드러났던 지독히 색채적이거나 선적인 성향에 대하여 납득이 가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공간 설치를 하면서도 공간 자체의 느낌보다 선과 색이 더 눈에 들어왔었으며, 예민하게 작업을 다루는 손끝에서 완벽한 채색을 위한 섬세함이 느껴지곤 하였다. (10여 년 전 지인의 갤러리에서 재미 삼아 시작한 정기 옥션 행사를 위해 조그만 입체작업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살짝 벗겨진 부분을 손보고 있던 극도로 예민했던 작가의 모습이 생각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경부고속도로> 시리즈를 회화로 표현하였다. 지도 자체는 본래 데이터의 모임이다. 지형의 각도, 길이, 폭, 고도 등을 표현한 수치에 따라 만들어진 시각적인 그림이다.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하고 있는 지형의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야 한다. 작가는 이러한 데이터의 집합체인 지도를 다시 한 번 캔버스 위에 시각화 한다. 이런 과정은 작가에 의하여 다시 한 번 가공된 전혀 색다른 풍경이다. 가공 과정은 순수하게 작가의 직관에 달려있다. 회화로 표현된 <경부고속도로> 시리즈는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한 매체인 컴퓨터 그래픽의 디자인 툴에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들을 모아서 이를 직관적인 배치로 만들어낸 이미지이다. 직선의 오류에서 생긴 곡면 데이터의 모임 중 검은 색으로 채색된 부분으로 인하여 그림자와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구멍이 뚫린 듯 공간감을 드러낸다. 캔버스 가장자리의 테두리로 연결된 형태들은 마치 공간 속에서 빠져나와 다른 레이

어의 공간에 걸쳐진 듯 보이는 효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면 작업 속에는 아직도 공간감과 입체감이 여전하다. 화면의 면들은 물감으로 겹겹이 쌓아 올라가 있다. 들여다보면 면과 면 사이의 두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시리즈는 그래프의 조각들로 구성된 화면이다. 이들은 실제 경제 지표인 코스피 수치를 기준으로 변화하는 그래픽 이미지 조각들이다. 이들의 수치는 객관적인 정보이며 작가는 이를 기반으로 그린 그래프들을 분해하고 분해한 선들을 배열하되 그 과정에서는 작가의 직관이 발휘된다.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있으나 데이터 자체의 분석은 의미가 없어진다. 형태와 색채만이 부유하는, 공간과 평면을 오가는 조형언어로서의 의미만 남겨진 채이다. 이는 입체작업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 레이저로 컷팅하여 만들 철판 작업인데, 표면의 회화적 마티에르를 과시하는 채색방식은 이 작품이 지닌 고유의 재료를 상쇄시키고 있으며 이 입체가 품고 있는 두께와 공간을 평면화 해버린다. 하나의 평면처럼 보이는 이 입체작업은 마치 그림자처럼 남겨진다.

경현수 작가는 평면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회화의 최종 목표가 완벽한 평면성임을 부인한다. 데이터의 사실성을 유지하면서 재현적 정보를 그대로 활용한다. 그의 작업은 이미 순수 추상으로 불리우던 모더니즘적 착시를 펼쳐버렸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회화요소로서 '형태'와 '색채'를 다루고 있다.